

꺾직한 공모사업 잇단 선정...장성군 대도약 꿈 영근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391억원 투입 13ha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 주도 스마트 농업...아열대작물 중심지로 부상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

노후화 장성호관광지, 300억원 들여 관광특화공간 조성
복합문화공간·테마파크 들어서고 홀로그램 야경 연출
대창동 역사성 살린 도시재생사업...목재문화 중심 기대

▶지난 4월 챔버형 스마트팜을 찾은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군이 잇따른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목된다. 올 한 해 잇따른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미래 성장 지형을 바꿨다는 평이다. 농업, 관광, 도시재생 등 군의 주력 분야와 맞닿아 있어 상승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올 한 해 장성군의 주요 공모사업 내용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청년이 주도하는 스마트농업...아열대작물 재배 중심지 부상=장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391억원을 투입해 삼서·삼계면 일원 13.1헥타르(ha)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6.9ha, 스마트팜 융복합단지 6.2ha를 구축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공동육묘장, 스마트산지유통센터(APC), 가공센터, 체험교육장, 챔버형스마트팜 등을 조성한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 이 사업의 키워드는 '청년' 그리고 '아열대작물'이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들에게 아열대작물 재배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

다. 전략작목으로 육성 중인 장성 레몬과 아열대채소를 청년창업 테마로 삼고, 조직적으로 단지화·규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2026년 완공되는 삼계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 지역농협과 협력해 '장성군스마트농업육성지구컨소시엄(JSDC)'을 구성하고 육묘·재배·유통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경영지원을 펼친다.

'스마트농업'과 '청년의 힘'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저력을 갖추는 것이 최종목표다. 'K-아열대' 스마트팜 청년창업, 수출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호관광지, 사계절 명소 '원더랜드'로=장성호관광지의 변신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장성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장성호관광지는 장성 출신의 거장 임권택 영화감독을 기념하는 임권택시네마테크, 문화예술공원 등이 있는 장성의 대표 명소다. 특히 문화예술공원 전망대는 장성호, 노령산맥 등 장성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핫 스팟으로 꼽힌다.

하지만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며 차츰 노후화가 진행됐고, 자연스레 방문객 감소 등 지역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장성군은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명소로 만드는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를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제안해 지난 11월 선정됐다.

총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한 장성군은 2026년부터 장성호관광지 일원에 관광특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술공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으로 구성되며 자이언트리, 에어바운스 등 색다른 즐길거리도 갖춘다.

임권택시네마테크에는 다채로운 영화 콘텐츠를 구성해 더욱 풍성한 감동을 전할 계획이다. 공원 주변은 홀로그램과 경관조명을 이용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한다.

장성군은 동화 속 상상의 나라 '원더랜드'로 거듭날 장성호관광지가 북부권 관광·경제 발전에 활력소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재문화 중심지' 대창동 도시재생사업=크리스마스

를 며칠 앞둔 지난 23일, 장성을 대창동 주민들이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7년의 도전 끝에 대창지구가 국토교통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통보였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장성군은 국·도·군비 등 270억원을 투입해 장성을 대창지구 일원에서 ▲거점시설 조성 ▲정주환경 재생 등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거점시설로 조성될 '편백나무센터'가 이목을 끈다. 죽령산 편백숲 산림자원을 콘텐츠화한 시설로 로컬레스토랑, 생태교육장, 편백체험실, 큰푸름편백물 등으로 구성된다. 1층에는 액티비티거든을 조성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정주환경 재생도 관심을 모은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천로 일부 구간을 평탄화하고, 편백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다.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결합된 '교원식'으로 조성해 안전도를 높인다.

편백나무센터는 편백디자인 거리 등 장성을 대표하는 죽령산 편백숲을 콘텐츠로 가져온 장소가 대창동이라는 점도 인상적이다. 대창동은 과거 전남제철소를 중심으로 목재 유통이 활발했던 곳이다.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연계한 시도로 높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이 외에도 장성군은 총사업비 428억원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50억원 규모 귀농귀촌체류형지원센터 조성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공모에 선정돼 전광을 받게 한다. 총 52건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등 101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풍성한 수상 실적도 돋보인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평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 평가, 지방도 도로정비, 식량·원예평가, 공공하수도·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 35개 분야 수상을 기록하며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상사업비·포상금 9000만원을 획득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5만 군민과 900여 공직자가 힘을 모아 거둔 뜻깊은 성과라며 "올해의 실적이 2025년 대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편백나무센터 조감도.



장성호관광지 장성 원더랜드 프로젝트 조감도.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